



환경문제 보도 미흡한 점 많다

진실성 추구, 공정성 확보로 제역할 찾아야



최근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언론인의 전문지식과 기사를 다루는 요령도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보도, 단순히 고발에만 그치는 사실보도, 과장보도 내지는 선정보도, 미확인 보도 및 부정확한 보도가 제공되어 본의 아니게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가끔 본다.

이 글은 지난 6월2일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정재춘 교수(연세대학교 환경과학과)가 발표한 "매스미디어의 환경보도 추세와 환경보전 역할"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註>

1. 환경보도의 증가 현황

근래에 들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가 크게 늘었다. 주요 일간지들의 경우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환경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이며, 1주일에 1~2회는 신문의 1면 전체가 환경

문제로 할애되고 있는 신문도 있다.

1992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과거 10년동안 환경기사건수는 20배나 늘었다. 또한 단지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해'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 보호, 희귀동·식물 등 광범위한 영역의 '환경' 영역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 보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다루는 심도와 전문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그동안 환경문제의 양상이 복잡해졌고 기사로 다루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언론인의 전문지식과 기사를 다루는 요령도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문제 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인 보도, 단순히 고발에만 그치는 사실보도, 과장보도 내지는 선정보도, 미확인보도 및 부정확한 보도가 제공되어 본의아니게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가끔 본다.

일반대중들은 환경기사를 통해서 환경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며,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환경보도를 통해 정책 결정에 관한 판단 자료를 얻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과학자들도 환경보도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과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환경운동가들도 언론을 매개체로 하여 대중에게 이들의 의사를 전파하기도 한다.

환경보도의 영역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다각화되었다. 환경문제 발생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4

가지 부분을 환경, 정부, 기업, 주민이라고 규정할 때 환경보도는 이러한 4가지 주체 사이에서 제기되는 갖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환경보도의 역할

환경보도의 첫번째 역할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실을 대중에 전달하고 오염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환경의식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처가 '90년도에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는 매스컴이 52.5%로 단연 1위였다.

환경보도는 기업, 정부 및 시민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취재 보도함으로써 이들의 개발행위 및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언론이 직접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민간 환경단체들의 감시 행위를 보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교육과 홍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의식의 제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환경시설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며 외국의 모범 해결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해 정부, 기업, 주민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기획, 연재, 캠페인 등의 형식을 빌어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이해가 엇갈리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타협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환경보도의 일반적 문제점

가. 과장보도 및 선정주의

우리 나라에 있어서 환경보도의 문제점중 하나로 과장보도와 선정주의(sensationalism)를 들 수 있다. 91년 3월에 있었던 수돗물 오염사건에 대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보도와 선정주의의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과장보도와 선정주의 경향은 특히 제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집약될 수 있다.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을 죽인다”

“임산부 ‘기형아·유산’ 공포”

“영남 맑은물 쟁탈전” “오염피해 눈뜨고 당한다”

“수돗물 오염은 ‘간접살인’”

이러한 과장보도와 선정주의 경향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사건을 극화시키기 위한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환경문제와 같이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인과관계의 규명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성’이 없는 사건의 보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다. 때마침 1991년 3월에 있었던 수돗물 파동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환경문제들 중에서 그 피해상황이 일시에 뚜렷이 노정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과장보도 및 선정주의 의식을 크게 자극했던 것 같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과대기사화하지 않으면 뉴스성이 떨어지고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기자들도 많다.

나. 과학적인 기반이 약한 보도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의 분야와 양은 방대하다. 특히,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그 심각도와 영향을 자연과학적인 분석방법과 단위를



이용해 표기한다. 더구나 일반인은 환경현상이 자신의 건강이나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지식은 가장 앞선 전문가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여러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딱부러진 해답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겨울철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이 서울시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환경기자는 대기오염 측정 전문가, 환경의학자 등 폭넓은 취재원의 의견을 종합해 가장 사실에 가깝게 짐작해 낼 뿐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깊은 이해가 없는 신문사의 데스크나 환경기자들은 종종 '0.15ppm=호흡기 질환' 등의 즉석답변을 원한다. 0.05ppm이라도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자연과학적 기초를 다지지 않은 기자와 데스크가 만든 환경기사는 종종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보다는 대중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다. 문제의 중심을 왜곡하는 편파보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중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편파보도가 게재되기도 한다. 다음은 '91년 4월 12일 모 중앙일간지의 머리기사이다.

삼푸서 중금속도 검출, 린스도 비소·납에 전인산염까지, 강을 씻이는 주범

해마다 20% 이상 소비가 늘고 있는 삼푸와 린스가 거품을 일으키는 계면활성제 성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수질오염의 주범' 격인 전인산염과 비소·납 등 중금속 성분까지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 납성분은 삼푸에서 10.31~18.16ppm, 린스에서 7.76~16.38ppm이 각각 나왔으며 비소는 삼푸 0.14~0.39ppm, 린스 0.35~1.56ppm이 검출됐다. 이같은 유해중금속은 화장

품으로서의 안전기준(20ppm)에는 못미쳐 인체에 별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질을 중금속 오염시킨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환경처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보도의 파문은 뜻밖에 컸다.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 단체에서는 즉각 삼푸·린스의 피해실태 조사와 '안쓰기 운동'에 들어갔고, 다른 일간지는 사실을 통해 "이번 조사는 세탁용 세제와는 달리 삼푸나 린스에 부영양화의 유발요인이 없다는 업계의 주장을 뒤엎은 것"이라며 "공해물질이 적은 세제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생산 중단까지도 검토되어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이런 '삼푸·린스 유헤론'의 영향을 받아 4.5월의 삼푸·린스 매출액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면 삼푸·린스는 과연 수질오염의 주범인가.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공격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말한다. 삼푸·린스가 비누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성세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연구원도 "세제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삼푸·린스의 경우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금속 부분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삼푸·린스=유해'라는 선입견을 주입시킨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검출된 중금속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양 정도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다. 조사기관인 환경처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라. 원인규명과 대책제시에 대한 기사가 적다

현 환경문제 보도의 또 다른 취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현황을 기사화하는 데는 그런대로 제 사명을 다하고 있으나 그 원인규명과 대책제시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도 전술했듯

이 91년 3월에 있었던 수도물 파동기간 동안의 기사제목들을 보면 대체로 잘 감지할 수 있다. 제목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고발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분제의 심각성을 고발성 면에서 보도하기는 비교적 쉬운 반면 이의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한 기사 작성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획취재나 좌담회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원과 전문가를 선정했는지, 운동가형인 정보원뿐만 아니라 학자적이고 보수적인 정보원도 골고루 선정했는지,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 분야에 정통한 학자들을 다양하게 선정하였는지 생각해보면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든다.

앞으로의 환경보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발적이고 피상적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기사작성에서 벗어나 보다 심층적이고 이성적이며 대안 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 공정성이 약하다

환경보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취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공정보도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보도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겠는데, 물론 환경문제의 보도에 있어서 엄격한 의미의 공정보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신문이 공정보도 원칙에서 벗어나 이른바 편파보도를 하게 되면 대중에서 전하는 '세상의 거울'이 변형되고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와 마음의 양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보도의 공정성에 있어서 특히 염두에 둘 것은 정부와 기업, 시민의 3자를 원초적으로 분리하여 일방을 너무 공격하고 일방을 너무 두둔하거나 하는 일을 삼가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 책임감이 부족하다

환경기사 보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취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보도의 책임성 문제이다.

환경기사의 작성에 있어서 책임감의 문제는 기자의 윤리의식과 관계된다. 모든 환경기사는 현상의 보도에서 원인분석, 대책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게 보도해야 하며 어떠한 보도든간에 1회용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기사가 1회용으로 끝난다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특히 환경문제의 보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된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문제 보도에 있어서 만큼은 한 번 또는 몇 회에 걸쳐 보도하기만 하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속보도 내지는 추적보도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고 독려하여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 전문성이 낮고 부정확한 기사가 많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사는 전문성이 낮고 부정확한 기사가 많이 존재한다.

아. 취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환경문제는 자연·정부·기업·시민이 얽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환경보도는 자연과 사회 양쪽을 포괄하게 마련이며 기사의 원천 또한 다채로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보도는 출입기자 제도에 묶인 취재관행 때문에 환경처 등 행정부에 대부분의 취재원을 두고 있다. 1991년 4월 한달 동안 종합일간지가 보도한 53건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취재원 별로 분류해 보았던바, 관급기사가 2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오염 현장이나 지역주민을 취재원으로 한 기사는 11건으로 20%에 지나지 않았



과대표현의 예

과대표현 문구	종류	비고
1)시설 넘고 전문인력 부족/정수장 관리 엉망	제목	'90.7.3. 모 일간지
2)수돗물 여과지 중금속투성이	제목	'90.7.3. 모 일간지
3)서울 녹색땅 급속 '증발'	제목	'90.7.9. 모 일간지
4)러브카날 사건 ... 이 마을 폐쇄. <u>죽음의 땅으로</u> 변하고 말았다.	기사문	'90.7.3. 모 일간지 현재 주민을 이주시키고 조사중이나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5)지하수가 <u>숨도</u> 미움놓고 못된다	제목	
6)산성안개 <u>서울이</u> 숨막힌다	제목	
7)... 1천만 영남지역 주민들을 <u>단번에</u> 발암물질 <u>공포로</u> 몰아넣고 말았다	기사문	'91.3.24. 모 일간지

고 단체·연구소는 15건, 외신 1건 등이었다.

이러한 관급정보 의존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나 자연생태계 파괴 등보다는 손쉽게 쓸 수 있는 정책기사를 남발하는 결과를 빚는다. 또 환경분쟁을 보는 시각도 피해자인 주민보다는 정부·기업 등 가해자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나타낸다.

폐놀사태 때 각사마다 3~명의 취재기자를 현지에 내려보냈지만 이들 가운데 환경처를 출입했던 경험이 있는 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환경문제에 사실상 문외한이었다. 현재의 취재시스템에서 환경 문제가 터졌을 때 환경전문 기사를 현장에 보낼 수 있는 신문사는 거의 없다. 환경처 출입기자가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편이지만 그나마 몇 달 안 돼 출입처가 바뀌는 일이 흔하다.

4. 환경보도의 기능

가.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

환경문제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의 기준은 첫째로 신문내용의 진실성에서 찾아야 한다. 신문내용이 현대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영양소가 참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문기사 특히 환경기사가 이러한 진실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독자들의 비판과 연

구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 된다. 만약 이러한 영양소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때는 인간의 정신적 건강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성이란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편파성이 없어야 한다.

또 뉴스보도가 왜곡되는 이유로는, 첫째 많은 언론인들이 대중의 취향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눈치를 보고 있는 점, 둘째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이 사람마다 다른 점, 셋째 많은 전문적 전달자들이 국수주의적 태도나 자기민족 우월감에 빠져 외국의 환경으로부터 뉴스를 선택·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시키는 점, 넷째 언론기관의 통제 및 기사선택 과정이 뉴스의 내용이나 주제 또는 그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 다섯째 기술적으로 신문지면의 제약이나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전달내용이 빈곤해지고 왜곡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뉴스의 왜곡원인을 제거하려면 언론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세계현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앙정보**